

메이지 초기의 정한논쟁에 관한 일고찰 : 요시오카 코우키(吉岡弘毅)의 조선인식과 그의 기독교 사상을 중심으로

박은영(성균관대학교)(대학원 2-6)

I. 들어가며 - 정한론의 등장

중국이 아편전쟁 후 체결한 남경조약(1842)에 의해 서구열강에게 문호를 개방한 지 10여년이 지나 일본도 1854년 군함을 앞세운 페리에 의해 개항하게 되었다. 일본은 근대 국제법에 의해 최초로 체결했던 일-미화친조약(1854.03.30)을 시작으로 세계 여러 열강들과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된다.¹⁾ 이러한 조약체결을 둘러싸고 막부파와 천황파의 분쟁이 일어나 이 과정에서 존황파의 승리로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1868년 메이지 신정부가 수립되었다. 그리고 분열된 정치체제에서 메이지 시대를 시작한 일본은 불과 몇 십년 사이에 가장 중앙집권화된 국가 중 하나로 면모하게 된다. 즉 서구 세력으로부터 기인한 대외 위기감은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중앙집권화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던 것이다.

일찍이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은 저 유명한 『수인록(幽囚錄)』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지금 급한 것은 무비를 갖추고, 함도 준비하고, 포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곧장 양이를 개척하여 제후를 봉하고, 그 틈을 타서 감차카(加摸察加, 러시아 극동 태평양쪽으로 돌출된 반도지역 - 인용자)와 오호츠크(澳都加, 러시아 시베리아 동부의 오호츠크 해에 접해있는 지역 - 인용자)를 빼앗고, 류큐(琉球)를 깨우쳐서 국내 제후와 같이 조근(朝覲, 신하가 임금을 뵈던 일 - 인용자)회동하도록 하고, 조선을 꾸짖어 옛날 왕성했을 때처럼 조공하게 하고, 북으로는 만주 땅을 갖고, 남으로는 대만과 여송(呂宋, 루손, 필리핀 섬 - 인용자)의 제도를 접수하여 점차 진취의 기세를 보여야 한다. 그런 후에 민을 사랑하고 사를 양성하여 변위를 지키도록 하면, 이것이 곧 나라를 보전하는 것이다.²⁾

이와 같이 서양으로 인해 촉발된 위기인식은 결국 서양식으로 군비를 정비하여 근

1) 미국(1854, 1858), 영국(1854, 1859), 러시아(1855, 1859), 네덜란드(1856), 프랑스(1859), 포르투갈(1859)

2) 山口県教育会編, 『吉田松陰全集』1권, 岩波書店, 1934-36, 596

린 지역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취하기 쉬운 조선, 만주, 중국을 잘라 갖고, 교역에서 러시아에게 잃은 것은 조선과 만주에서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³⁾고 말하고 있듯이, 조선을 비롯한 대외 침략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시다 쇼인의 논리적 구조는 메이지 유신 이후 계승되어, 요시다로부터 배웠던 기도 타카요시(木戸孝允) 등은 메이지 유신과 함께 정한을 강력히 주장하며 조선에 일본의 위력을 신장할 것을 원했던 것이다.⁴⁾

이러한 정한논쟁이 크게 고조된 것은 1873년 무렵으로, 구미로의 사절단이 파견되고(1871-73), 유수정부를 책임지게 되었던 가장 유력한 두 지도자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와 이타가키 타이스케(板垣退助)는 동요하는 구 사무라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정한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⁵⁾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정한논쟁을 둘러싼 배경을 전제로, 정한론에 반대하는 건백서를 메이지 정부에 제출했던 요시오카 코우키(吉岡弘毅, 1847-1932)의 논리와 그의 조선인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요시오카 코우키는 한국에서는 물론 일본에서도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로, 메이지 초기의 정부관료(외교관)로서 대조선 외교를 담당할 적이 있고, 외교성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단조다이(彈正台)라는 기관에서 일하면서 기독교를 감시하고 금지하는 업무를 맡기도 하였으며, 기독교에 입신하고 난 후에는 일본기독교회의 목사에까지 이른 인물이다. 따라서 요시오카의 논리와 조선인식을 검토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 사회 등의 문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은 물론, 메이지 초기에 기독교 입신자의 아이덴티티, 이 시기의 일본기독교의 조선인식의 일단을 확인하는데 유효하다고 여겨진다. 나아가 지금까지 기독교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정한론이라는 문제를 “일본기독교의 조선인식”이라는 큰 틀 속에 넣어 살피고자 하는 최초의 시도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⁶⁾

3) 山口県教育会編, 『吉田松陰全集』 5권, 岩波書店, 1934-36, 332

4) 芝原拓自, 「対外間とナショナリズム」, 『日本近代思想大系12』 対外観, 岩波書店, 1988, 472

5) 부연하자면, 메이지 초기의 정한논쟁은 실은 정한파와 비정한파의 문제에 앞서 막말부터 이어지고 있던 막부파와 존황파의 계보 속에서 각 그룹에 속해있던 사람들 간의 정치적 주도권 싸움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요컨대 요시다 쇼인의 제자인 기도 다카요시에 의해 메이지기 정한론의 시발점이 된 이래, 이후 이와쿠라를 비롯한 구미사절파의 비정한론과 유수정부파의 정한론의 입장으로 분열되어 처음에 정한론을 외쳤던 기도 다카요시조차 이와쿠라의 비정한론의 입장에서 정한 저지를 주장하게 된다. 사이고 등의 정한론이 성공할 경우의 구미사절파의 정치적 입지의 축소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볼 때 정한파, 비정한파라는 구분이 실은 정치적 의견차이, 주도권 쟁탈에 불과한 정도였다고도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메이지 신정부 내부의 자세한 정치적 쟁론을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정한론의 등장배경과 전개 양상 정도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마치기로 한다.

6) 요시오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초기 정치사를 다룬 연구에서 간혹 이름이 등

II. 요시오카 코우키의 이력 - 기독교 입신까지

요시오카 코우키는 1847년 7월 8일 후쿠도(福渡)에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한학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진보가 현저하였던 요시오카는 13세 무렵이 되어서는 소라이학(徂徠學)의 태두로 치국평천하의 길을 강조하며 정치사상을 고취하였던 나가타니 료스케(中谷亮輔)의 사숙에 들어가게 된다. 이 시기에 나카타니로부터 근왕애국의 정신을 배웠으며, 몇 년 후 사숙에서 귀향하여 주자학을 공부하던 중 16세 때에 라이산요우(賴山陽)⁷⁾의 고제로서 유명한 모리타 셋츠사이(森田節齋)의 문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모리타로부터 더욱더 존왕양이의 정신을 고취하여 요시오카는 열렬한 존황가가 되어, 18세 무렵에는 이미 모리타를 대신하여 강의를 할 만큼의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는 막부파와 존왕파 사이의 쟁투가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시기 청년 요시오카에 대해 아들 요시오카 메구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당시 청년의 패기에 충분해 있던 아버지는 비분강개의 눈물을 삼키며, 후일 근왕을 위해 몸을 바치고 설 것을 굳게 약속하고...(후략)⁸⁾

이후 보신전쟁(戊辰戰爭)에 참가하기도 했고, 교토에서는 천황의 도쿄행에 항의하여 할복을 각오하고 건백서를 제출하려고까지 했다. 이러한 근왕의 정신을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로부터 인정받아 1869년 7월 창설되었던 단조다이에 등용된다.

단조다이(彈正台)는 풍속을 엄정하게 하고 비위를 규탄하는 기구로 천황에 대한 불경을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하던 존왕파의 거점이었다. 강력한 존왕양이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청년 요시오카는 당시 외래 종교인 기독교에 대해 ‘국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맹렬하게 반대의 의견을 토해내기도 하는 등 전형적인 ‘사교 배격론자’였다.

장하는 정도에 불가하다. 남겨진 자료가 극히 적은 것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요시오카를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이유는 (1) 메이지 초기의 관리들의 시세를 읽을 수 있으며, (2) 메이지 초기 기독교에 대한 이해, (3) 메이지 초기 조선인식의 일단을 살펴볼데 유효하기 때문이다.

7) 에도후기의 역사가이자 양명학자.(1780-1832)

8) 吉岡愛, 『父を語る』, 横浜刑務所印刷部, 1940, 4 ; 요시오카가 자필로 남긴 저작물이 극히 적은 가운데, 요시오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그의 아들 요시오카 메구무가 남긴 『父を語る(아버지를 말한다)』는 대단히 귀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요시오카 메구무는 스스로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적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므로 요시오카의 생활을 추적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아버지는 그 당시 불과 23세의 청년이었는데, 일찍이 후지타 토우코(藤田東湖)⁹⁾에게서 사숙하여 머물렀기에 존왕양이의 마음이 강하고, 외래의 예수교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져, 특히 오하시 토츠안(大橋訥庵)¹⁰⁾이 저술했던 『벽사소언(關邪小言)』을 읽고 예수교가 우리나라의 국체에 해독을 홀리는 것이라고 망상하기에 이르러, 동료에게도 맹렬하게 예수교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맹렬하기에 단조다이의 장관 와타나베(渡邊) 씨(최초의 오사카부지사가 된 사람)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정도였다.¹¹⁾

얼마 후 요시오카는 외무성으로 전근하게 되었고, 외교관으로서 1870년 12월부터 1년 반 이상을 조선에 체류하면서 조선정부와의 교섭에 임하게 된다.

당초 요시오카가 조선에 파견되기 전에 이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등이 파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약 20여일에 걸친 부산 초량관 체재 후에 귀국하여 ‘정한 건백’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격노선보다 온건노선을 추진했던 정부에 의해 재차 교섭할 것이 결의되어 요시오카가 조선에 파견되었던 것이다.¹²⁾ 안타깝게도 요시오카가 조선에 머물면서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874년 제출했던 건백서와 아들인 요시오카 메구무의 『아버지를 말한다(父を語る)』를 통해 당시의 체험이 정한론을 정면에서 반대하는 귀중한 체험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요시오카가 메이지 신정부를 대표하여 조선에 파견되었던 것은,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듯이 그의 일생을 통해 표면적으로 가장 화려했던 시기였다.¹³⁾ 그럼에도 조선에서 돌아 온 요시오카는 돌연 관직을 사직하고 일개 서생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버지를 말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사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성서 - 인용자)를 읽는 사이에 단조다이 봉직 당시에 품은 예수교에 대한 반감은 차제에 완화되어 진면목을 연구하게 되어 성서 가운데 기록된 말이 과연 진리라면 무엇을 해서라도 이것을 세상에 보급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좋은 말로 세상을 기만하는 사교라면 이것을 소멸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이것이 연구를 하기 위해

9) 요시오카의 아들 요시오카 메구무(吉岡愛)의 착오로 여겨진다. 후지타 토우코는 미토번(水戸藩)의 정치가로 에도 후기에 활약하였다.(1806-1855) 시간의 흐름상 요시오카가 후지타에게 직접 배웠다기 보다는 후지타파의 사숙에 들어갔던 것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10) 에도후기의 유학자. 서양학문을 배척하고 막부의 대외정책을 비난함.(1816-1862)

11) 吉岡愛, 상동, 10-11

12) 牧原憲夫, 『明治七年の大論争』, 日本經濟評論社, 1990, 194

13) 吉岡愛, 상동, 12

서는 관을 그만두고라도 철저하게 몸을 맡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찰라, 돌아올 것을 명받았기에 교섭의 결말을 보고한 다음 몇 명과 상담하고 단독의 의견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체를 내던지고 일개 서생이 되었던 것이다.¹⁴⁾

요시오카는 조선에 머물며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일이 지연되며, 모든 일이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염려 가운데 왕성한 독서에 몰두했는데, 이 시기 동료 모리야마로부터 받았던 한역 친구약성서는 과거 ‘사교 배경론자’에서 ‘기독교인 요시오카’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¹⁵⁾

그리고 마침내 요시오카는 불과 26세의 나이에 외교관 생활을 그만두고 일개 서생이 되어 기독교 연구와 서양 연구에 몸을 던지게 된다. 요시오카 자신도 기독교 입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듯이 애당초 그의 기독교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 종교, 도덕적 종교에의 관심이었다.

아버지는 이러한 외국인의 열심 있는 지도에 대해서 후일 나에게 “프루베키 선교사는 실로 학식이 깊은 사람으로 나의 질문에 무엇이랴도 만족스런 답을 주었는데 저러한 학자가 믿는 종교라면 반드시 기독교는 믿는데 족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 “탐슨 선교사는 실로 정직한 사람으로 내가 여러가지 난문을 내어도,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정직하게 말했다.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믿는 종교라면 이것 또한 진정한 종교일 것이라고 느꼈다”고 당시의 생각을 말한 적이 있다.¹⁶⁾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여 세례를 받을 무렵(1875)에는 신앙에 대한 일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요시오카 메구무의 다음과 같은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그 당시 세례지원자는 그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을 받아, 신앙을 위해 정부의 역인에게 포박되거나 혹은 참수의 형에 처해지더라도, 신앙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을 당하고 세례를 받는 목숨을 거는 각오를 요하는 정도로 진정한 것이었다.¹⁷⁾

14) 吉岡愛, 상동, 17

15) 요시오카 메구무에 의하면 성경과 함께 아버지의 사상에 큰 영향을 비쳤던 것은 사마온공의 『통감(通鑑)』과 왕양명의 『진습록(傳習錄)』이었다고 적고 있는데, 요시오카가 기독교를 통한 개개인의 윤리적 자각문제를 중시했던 것은 이러한 양명학의 영향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16) 吉岡愛, 상동, 18

요시오카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한 신도로서 신의 쓰임을 위해 서게 되었으며, 또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관직에 있을 때 하사받았던 훈장을 반납하기까지 했었는데, 요시오카 메구무는 “아버지의 진짜 뜻은 사람이 정한 작위를 버리고, 하늘의 작위를 얻는 것으로 여생을 신에게 바치는 것에 있었다”¹⁸⁾고 평가한다.

III. 건백서 제출

1. 정한반대

전술했듯이 메이지유신 이후 이와쿠라 구미사절단이 파견되고, 유수정부를 책임지게 되었던 유력한 지도자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은 동요하는 구 사무라이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동시에 민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며 정한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정한 논쟁이 가장 크게 고조되었던 것은 1873년 무렵인데, 이제 막 관복을 벗어던졌던 요시오카는 그 이듬해(1874) 2월 정한 반대, 기독교의 공인 등을 내건 장문의 건백서를 제출하였다.

요시오카는 전(前) 외교관으로서의 조선체험을 바탕으로 당시 정한론의 제기 이유로서 거론되던 ‘조선의 일본에 대한 무례, 경멸적 태도’에 대해, 조선은 일본을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의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정한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 다음의 세 가지를 들며 책임은 오히려 일본에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분록 케이초의 역(文祿·慶長の役)으로 일컬어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이다. 조선이 이 역사적 체험을 통해 당시 팔도가 유린되고, 유혈이 온 천지에 가득하며, 도요토미의 횡포가 이르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조선인들의 뇌리 속에 남아 전율하게 하며, 이것이 일본을 위구하는 이유라는 것이다.¹⁹⁾ 둘째, 츠시마(對馬)와 조선과의 관계이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일본과 조선 사이에 완충지대로 끼어있던 츠시마가 매년 막대한 미곡을 조선으로부터 받으면서도 재정이 궁핍하므로 누차 핑계를 만들어 수년의 분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조선이 이를 거부하지 않았던 것은 츠시마의 ‘공갈’ 때문으로 이것이 두번째 이유이다.²⁰⁾ 셋째, 서계 중에 사용되었던

17) 吉岡愛, 상동, 19

18) 吉岡愛, 상동, 19

19) 吉岡弘毅, 「建議【教法自由、告諭処設置、征韓不可、民選小議院設置等ノ議】」(1874年 2月 20日), 『明治建白書集成』第3巻, 筑摩書房, 1986, 134(이하, 吉岡弘毅, 「建白書」로 표기함)

‘황(皇)’, ‘칙(勅)’ 등의 문자 때문이다. 요시오카는 ‘황’, ‘칙’ 등의 문자는 천자가 속국에 대해 사용하는 문자이므로, 일본이 이 문자를 사용함은 조선을 속국화하려는 간계라고 하는 조선의 주장을 인정하며, 이것이 일본을 의구하는 세번째 이유라고 밝혔다.²¹⁾

요시오카는 외교관으로서 조선에 체재할 때 조선정부와의 교섭에 있어 어디까지나 ‘지성으로’ 일을 하다보면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온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그렇지만 결국 교섭은 결렬되었고 1년 7개월여에 걸친 부산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온 이후로도, 더 시간을 두고 교린을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며, 조선은 일본의 화친통상 요구가 병탄의 간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을 뿐으로 조선으로부터의 무례는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²³⁾ 이와 같이 요시오카는 당시 대부분의 정한을 외치는 목소리들에 대해 직접 체험을 바탕으로 역사적, 현실적 근거에 기반한 정한 반대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2. 기독교 공인요구

한편 요시오카는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진정한 문명개화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명개화를 위해서는 기독교의 보급이 절실했고, 이에 따라 기독교의 공인을 요구했다. 이는 당시 계몽사상가들이 부국강병을 위한 서양문물의 도입을 주장하고 일반 대중을 개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독교를 인식했던 점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 경전을 읽고 또한 교사에게 의문이 있는 곳을 질문하고, 또한 이것을 궁리의 설에 넣어 처음으로 그 설의 지선지미(至善至美)하여 여러 종교의 위에 탁월하고 지우(智愚)의 구별 없이 만민을 교화하고 풍속을 개량하는 큰 세력이 있다. 서양의 고래 현철들이 굳게 이를 믿고 이를 위해 목숨을 다하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알고, ... 그러므로 바야흐로 지금 우리나라 인지가 개명할 때에 마땅히 이 종교를 허하여 민심을 두텁게 하고 풍속을 바르게 하여 국가 안녕의 기초로 정해야 한다.²⁴⁾

20) 吉岡弘毅, 「建白書」, 134-135

21) 吉岡弘毅, 「建白書」, 135

22) 吉岡愛, 상동, 15-16

23) 吉岡弘毅, 「建白書」, 135-136

24) 吉岡弘毅, 「建白書」, 127-128

그런데 요시오카는 기독교의 국교화를 요구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의 분’으로서 인민에게 이 종교를 믿어라, 혹은 저 종교를 믿지 말아라 하는 명령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종교는 인민 고유의 권리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각 사람의 양심에 따라 믿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독교의 공인’만을 요구하였던 점이 눈에 띈다.²⁵⁾ 그리고 기독교의 공인이 천황제를 부정하고 공화정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난에 대해서는 “실로 허탄 억측의 논리로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교인에게 권해 정도를 행해 부모군장 및 모든 사람을 애경해야 하는데도 그 신도된 사람들은 망령되어 폐하를 경멸하는 자가 있다. 만일 그 무리로 폐하를 경멸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스스로 그 교지에 반하는 자로 예수의 죄인이 된다”²⁶⁾고 일축하는 등 당시의 정치체제를 상대화하려고 보다는 오히려 애국심에 바탕을 둔 국가에 일체화된 신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기독교의 보급을 통해 문명 각국의 환심을 얻을 수 있고, 이들과 화친을 두텁게 하여 우호관계를 쌓을 수 있다고 하는 논리로 이 시기 기독교 보급을 역설하던 여타 논의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오카가 이 시기 계몽사상가들과 구별되는 점은 인민의 저항권을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 국가가 금일 애민(愛民)의 미정(美政)을 멈추고 폭정을 실시하기에 이르면 마땅히 간절히 정부에게 간하고 또한 듣지 않으면 분발 저항하여 민권을 보호해야한다. 이는 정부의 죄로 인민의 죄에 있지 않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장래 인지가 더욱 열리면 가령 인민들이 예수교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결코 노예와 같은 폭정에 복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²⁷⁾

요시오카는 천하의 백성이 기독교를 통해 인지가 열리게 되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두려워하여 범죄가 줄어들고, 애국하는 마음이 일어나 국가를 위해 협력, 충성함으로써 국가가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²⁸⁾ 그럼에도 이러한 국가가 애민하지 않고 폭정을 실시한다면 이것은 정부의 죄이므로 이에 대항하여 싸워 민권을 보호해야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즉 요시오카는 기독교를 민권을 지키는 담당자로

25) 吉岡弘毅, 「建白書」, 128

26) 吉岡弘毅, 「建白書」, 128

27) 吉岡弘毅, 「建白書」, 128

28) 吉岡弘毅, 「建白書」, 128

인식했던 것이다. 그에게 인민은 하늘로 부터 받은 ‘자주자유의 권리’를 가진 존재로, 이러한 권리는 천하의 누구라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이기 때문이다.²⁹⁾ 이는 여타 계몽사상가들이 개화하지 못한 인민을 이끌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는데 종교의 목적을 두었던데 비해, 요시오카는 자기 스스로 기독교인이 되었기에 비로소 주장 가능했던 논의였던 것이다. 아울러 요시오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정치상의 자유도 언론의 자유도, 모두 크게 존중해야만 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자유만으로는 국민을 구제할 수 없다. 사람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얻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죄악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자유를 주는 종교이다. 우리 국민이 일어나 이 심령의 자유를 얻는다면 국가도 정치도 저절로 개선되어 신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일찍이 존왕파로서 활동했던 요시오카에게 있어 ‘국가에 공헌’ 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역시 인민이 기독교에 의한 정신혁명을 통해 개개인이 자각하고 진정으로 자유로운 주체가 되는 것에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결국 신의 나라를 지상에 건설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조선인식 - 약탈주의 비판

문명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에서 개개인의 정신혁명을 위한 도구로서의 기독교에 입신했던 요시오카는 정신혁명을 겪고 자각된 주체로서, 그리고 대조선 외교관의 경험을 가지고 조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일찍이 한때 신문지에 기재되었듯 (조선이 - 인용자) 우리나라 국서를 찢거나 혹은 교만 무례의 답서를 보내는 등의 부설(浮說)과 같은 무례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병력으로서 이를 정벌하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를 잘못되었다고 하여 철저히 우리에게 항의할 것이다. 동시에 저들은 단지 시간을 지연하여 교린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을 승낙하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이를 정벌하는 이치가 있다면 전년 우리가 왜국하고 있을 때에 외국인이 그 뜻을(조약을 맺고 개항하려는 것 - 인용자) 얻을

29) 吉岡弘毅, 「建白書」, 131

30) 吉岡愛, 상동, 24-25

수 없다고 하여 경쟁적으로 우리를 침범할 때 우리는 이로서 저들에게 바르다고 하고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³¹⁾

이 글에서 요시오카는 그 자신도 양이파로서 활동했던 수년 전의 모습을 떠올렸음에 분명하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조선 정부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내리며, “저들이 나라가 작고 병력이 약한 것을 경멸하여 망령되이 비리를 행하고자 하는가. 이것은 어른이 스스로 그 강함을 믿고 아동의 팔꿈치를 돌려서 그 먹는 것을 뺏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³²⁾ 라고 일방적, 독선적인 정한론에 일침을 가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나아가 요시오카에게 이러한 명분 없는 정한론은 불의와 부정의 외교이자 일본을 ‘강도국(強盜國)’으로 변모시킬 뿐이었다. 요시오카는 몇 년 후 후쿠자와의 기독교 공격에 대한 반론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약탈주의를 비판한 바 있다.

지금의 때는 경쟁세계이기 때문에 시비이건 무엇이건 관계할 것 없다고 조금이라도 토지를 빼앗으면 두둑해지고, 생각하지 않고 빼앗아 두둑해지면 좋다고 하는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일본제국을 강도국으로 변모시키려고 꾀하는 자이다. 이와 같은 불의부정의 외교정략은 결코 우리 제국의 실리를 증가하는 것에 있지 않고, 그저 단순히 실리를 증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원망을 이웃나라에 쬐고, 증오를 만국에 주어 구하기 어려운 재앙을 장래에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어찌 이것을 국권확장의 양책이라고 말할 것인가.³³⁾

그리고 오히려 지금과 같은 서양에 의한 압박이 있는 시기야말로 이웃 조선을 비롯해 중국과 같은 순망치한의 국가들과는 각별히 친목을 두텁게 하고, 위급시에 서로 돕는 것이 양책이었다.³⁴⁾

이러한 요시오카의 사상을 그의 표현을 빌려 ‘각개각별(各箇各別)’의 사상이라고 정

31) 吉岡弘毅, 「建白書」, 136 ; 요시오카에게 있어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勿施於人)'는 공자의 가르침은 더 나아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성서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에만 머무르는 소극적인 단계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남을 배려하고 실천해야 하는 적극적인 단계로 나아가야 하며, 이러한 인식한 위에서 정한 반대를 외치는 건백서 제출로 이어졌던 것은 아닐까.

32) 吉岡弘毅, 「建白書」, 136

33) 吉岡弘毅, 「駁福沢氏耶蘇教論」, 『六合雜誌』, 1882.8.3, 53-54

34) 吉岡弘毅, 상동, 54

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인민이 서로 같지 않아 각개각별”³⁵⁾ 하다는 서양철학을 들어, 각개각별한 개인이 서로 돕는 것은 상호 이익이 되고, 나아가 나라의 개화가 나아가는 이유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논리를 그의 조선론에 확장해 보자. 요시오카는 서로 같지 않은 일본과 조선을 각각 인정한 위에, 두 나라 각각 자주자유의 권리, 독립의 권리를 가지므로 불의한 방법에 의해 침략하고 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그의 조선인식의 중착점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근대화, 문명화의 관점에서 문명이 높은 일본, 미개한 조선을 인식하고 천시하던 입장에서 볼 때 탁월한 시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요시오카의 ‘각개각별’의 시점은 그의 평생토록 계속되었다.³⁶⁾

V. 나오며

메이지 초기의 정한논쟁은 ‘조선의 무례’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조선을 특별할 것을 주장하며 대대적으로 등장하긴 했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실은 정한파와 비정한파의 문제에 앞서 막말부터 이어지고 있던 막부파와 존황파의 계보 속에서 각 그룹에 속해있던 사람들 간의 정치적 주도권 싸움이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본질적으로 어느 그룹도 침략주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황파로 활동하다가 관직에 등용, 외교관으로서의 조선체험과 기독교로의 입신을 거치며, 의와 사랑의 신을 믿는 사람으로서 항상 ‘인의’의 사람으로 살고자 했고, 조선을 ‘각개각별’의 관점에서 독립된 나라로 인정한 위에 약탈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 서서 정한을 반대했던 요시오카 코우키의 탁월함이 있다. 이러한 요시오카 코우키라는 이름이 기존의 연구에서 등장하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점, 그리고 간간히 등장한다고 해도 자세한 검토 없이 요시오카를 오히려 정한 강경론자로 인식하고 있던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 역시 다양한 상황을 입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스테레오타입적 정한론에 대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기독교 사상에 입각하여 전쟁에 반대, 병력을 쓰는 것에 반대했던 기독교적 ‘도덕’의 가치를 극대화했던 요시오카의 사상은 일본 기독교회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우에무라 마사히사(植村正久)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에무라는 요시오카와 더불어 밤새 상담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했다는 기

35) 吉岡弘毅, 「建白書」, 137

36) "아버지의 독립 독행의 정신은 일생을 일관해서 있었는데, 만년에 장남도 차남도 어떤 일이라도 맡아서 하려고 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고 죽을 때까지 사람의 보살핌을 받지 않고 사셨다." (吉岡愛, 상동, 39)

록이 요시오카 메구무의 책에 남겨져 있다.³⁷⁾ 우에무라가 요시오카로부터 배웠던 이러한 ‘도의적’ 긴장감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이후 일본 기독교회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³⁸⁾ 이 부분 역시 근대 일본기독교사 속의 다양한 정황을 고려하는 가운데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참고문헌

1차자료

吉岡弘毅, 「建議 [教法自由、告諭處設置、征韓不可、民選小議院設置等ノ議] 」, 1874年 2月20日[『明治建白書集成』第3巻, 筑摩書房, 1986].

吉岡弘毅, 「駁福澤氏耶蘇教論」, 『六合雜誌』第26号, 明治15年(1882) 8月.

吉岡愛, 『父を語る』, 横浜刑務所印刷部, 昭和15年.

山口縣教育會編, 『吉田松陰全集』, 岩波書店, 1934-36.

2차자료

牧原憲夫(1990), 『明治七年の大論争』, 日本經濟評論社.

牧原憲夫(2008), 『日本の歴史13—文明國をめざして』, 小學館.

芝原拓自(1988), “對外間とナショナリズム”,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 岩波書店.

杵淵信雄(1997), 『福澤諭吉と朝鮮—時事新報社説を中心に』, 彩流社.

37) 吉岡愛, 同上, 22 ; 우에무라가 요시오카에 대해 평가했던 글이 요시오카 메구무의 책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요시오카 코우키씨는 혼고일본기독교회, 오사카기타교회, 코치일본기독교회 등의 설립 및 발달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으로, 일개의 아마추어전도자로서 몸을 드렸던 사람이다. 메이지 초년의 그의 이력을 숙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위대한 레이만의 이와 같았던 점을 이상하게(특별하게 - 인용자) 여겼고, 동시에 신앙있는 자들은 이를 신에게 감사했던 것이다.” : 『植村全集第』三巻, 546(吉岡愛, 상동, 22-23 재인용) 한편 요시오카는 만년에 우에무라가 1904년 설립했던 도쿄신학사에서 양명학을 가르치기도 했다.

38) 지명관은 우에무라가 체계적으로는 순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도의적’ 문제제기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지적한다.(池明観, 「日本基督教と朝鮮」, 『東京女子大學附屬比較文化研究所紀要』39, 1978, 15) 양현혜 역시 우에무라가 일본의 해외 세력 확장을 긍정한 위에서 그것에 ‘윤리성’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양현혜, 『근대 한·일 관계사 속의 기독교』,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48) 물론 우에무라 역시 정치체제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는 점은 주지의 사실로, 이를 포함하여 우에무라와 일본 기독교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